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주형* · 송주은**

유재은, 이유미, 한미경, 김소연, 홍기선, 이윤정, 오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욕기는 산후기간이라 부르기도 하며, 임신으로 변화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임신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대개 분만 후 6주간을 일컫는다 (최연순, 조희숙, 장춘자, 1987). 이 시기는 신생아 간호와 확대되는 가족을 위한 적응과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가족과 모아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시기이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산욕기 간호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유은광, 1993, 1995, 1997, 1998, 1999; 장문희, 유은광, 1999; 정영미, 유은광, 1999; 정현, 1999; Reeder, Martin, Koniak-Griffin, 1997).

우리나라의 임신과 출산관련 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임신과 분만중의 관리가 주로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이며, 분만도 주로 병원에서 전문가에 의한 출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어머니와 신생아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전문가로부터의 지속적 관리와 간호를 제공받을 수 없는 실태이기 때문에 모성간호의 큰 허점이 바로 산욕기 간호의 부재라고 하였다 (유은광, 1998).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보건 간호사, 산과 병동 간호사, 수유간호사

등이 퇴원직후부터 계속적으로 밀접하게 관계유지와 추후 관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Arnold & Backwell-Sachs, 1991).

실제로 우리 나라의 산후조리는 병원 입원기간 동안으로 국한되어 있다. 퇴원 후 추후 관리의 기회는 임상적으로는 주로 산후 1-2주 또는 3-6주에 신체회복 여부를 위한 의사의 내진 및 신체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 분만 퇴원 후 전문가의 중재 없이 거의 모든 여성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전통적 산후 관리 형태로 산후 조리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유은광, 1993). 최근까지도 산후조리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서 친모, 시모, 산후조력자에게서 산모 자신의 신체적 돌봄과 신생아 양육 초기 단계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아왔으나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예전에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던 산후 조리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산후 한 달간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며 회복되어야 한다는 문화적 신념과, 생리 심리적 회복의 조력을 위한 대안으로서 최근 산후조리원이 곳곳에 생겨나면서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다 (정현, 1999).

산후조리원이란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가 함께 입원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적인 산후조리시스템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후조리를 한 후 건강한 상태로 퇴

* 조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 연구조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성간호학교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소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후조리원은 1996년 10월에 처음 개원한 이래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1999년 6월말 약 200-300개의 산후조리원이 개설된 것으로 추산된다 (정현, 1999).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개설조건이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이에 대한 관련규제나 해당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은광, 1997). 현재 산후조리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숙박업의 기준은 숙박 시설과 종업원에 대한 제한된 위생 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내용을 포괄하는 규정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정현,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산후조리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 들어 많은 산모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간호요구도를 조사한 연구결과는 있으나 (정현, 1999), 아직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이용의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우리 나라 여성의 산후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산모들이 산후관리에 있어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3)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 4)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가족적/사회적 특성을 파악한다.
- 5)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식의 종류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이란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가 함께 입원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적인 산후조리시스템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후조리를 한 후 건강한 상태로 퇴소하는 기관을 말하며 (정현, 1999),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를 받아 산모와 아기를 일정기간동안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산모

산모란 분만직후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식기관이 임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까지의 기간인 산욕기에 속한 대상자를 말하며, 보통 산후 6주이내의 대상자를 뜻한다 (Reeder, Martin, Koniak-Griffin, 1997).

II. 문헌고찰

1. 산후조리의 중요성

산욕기 중 산욕초기의 산모는 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격한 근육활동으로 극도의 피로와 통증으로 인해 심한 갈증이나 휴식을 호소하는 등 신체적 생리적 요구의 결핍을 나타내며, 산욕기동안의 불편감과 모성으로서의 새로운 역할로 인해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때로는 산욕기 우울까지 겪게 된다 (최연순 등, 1987; Hrobosky, 1977). 따라서 산욕기의 산모는 신체적, 사회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에 대하여 적응해야 하며 산후에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특별한 음식, 활동, 거처 등을 적당하게 하여 돌봐줌으로써 임신전의 건강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후조리를 하는 목적은 아기 건강을 위해서 모유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장을 보호하며, 모체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아기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고,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산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 변화로부터 회복을 증진시키고, 평생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산후병을 예방 및 치료를 하고, 건강 회복, 유지, 증진 및 부전을 예방하는 등 산후의 여성과 아기 양쪽의 건강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유은광, 1993).

이렇듯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산모의 문화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강조되어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신세대 산모들은 누구에게도, 심지어 친정어머니에게도 신세지려하지 않으며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산모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거나 가정에서 마음 편히 몸조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어 산후조리원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조선일보, 1999). 하지만 산후조리원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개설조건이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이에 대한 관련 법규나 해당규제 기준이 없는 등 서비스내용을 포괄하는 규정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조선일보, 1999)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연구 결과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의 올바른 정착과 산모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산모의 산후조리원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한다.

2.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심리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식과 새로운 지식에 기초를 둔 문제 해결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은숙, 1988).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에 대부분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즉 수유나 목욕시키는 방법 등 (박영숙, 1991)이 미숙하고,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게 된다 (이은숙, 1988; Rubin, 1975). 따라서 출생 초기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이나 상태에 알맞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자극을 인지하고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돌봄이 필요하고(Ladwig, London & Olds, 1990), 전문인에 의한 신생아 관리에 대한 교육과 모아관계 형성에 대한 간호가 요구된다.

여러 가지 산모의 정서적 반응 중에 정상 부인의 2/3 정도가 산후 10일 안에 정신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산후 우울 증상이 있다고 한다. 이는 아기양육과 자신의 회복에 대하여 새로운 책임감이 생겨 자연적으로 절망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울증세는 아기를 돌보는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주어 (Oakley & Kane, 1999)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때에 남편의 지지 및 간호사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며 "모아함께 간호"는 이러한 산후 우울증세를 감소시켜줄 수 있다. Pinneau (1975)는 사회적 지지를 평가 혹은 정

보지지(information suppor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실체적 지지(tangible support)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3가지 측면을 고찰하였다.

부부가 가족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산육기는 부부가 함께 겪는 생애의 위기이며 가족의 재조직화가 요구되므로 부모로서의 역할이 할당되는 시기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역할 전환이며 (최연순, 장춘자, 조희숙, 최양자, 장순복, 박영숙, 이남희, 조동숙, 이은희, 1999)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어머니의 역할에 더 큰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공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체계적인 정보지지가 필요하다. 정서적 지지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건강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산후에 대한 산모들의 경험과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안황란, 1985). 특히, 분만은 가족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우자 및 혈연관계의 가족들로부터의 지지는 산모들에게서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산모들은 자신들이 배우자, 가족이나 기타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인지할 때 산후조리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는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접촉과 상호 작용을 위한 지지간호가 결속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하다 (서연옥, 1987; 안황란, 1985).

산육기의 중요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는 유즙 분비를 위한 유방의 변화와 자궁의 퇴축(involution)이며, 그 외에 신체의 각 기관이 변화되어 일시적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박영숙, 1991). 따라서 이 시기에 산모들은 영양관리, 체형관리 등의 실체적 지지인 개인의 객관적 환경 또는 상황에서 중재를 통한 조력 (Pinneau, 1975)이 요구된다.

이상의 문헌고찰에서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산후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서,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기초로 하여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1) 사전 조사

본 연구의 사전조사 대상자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1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산모 9명과 1개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 8명으로서, 총 17명을 연구자들이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들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면담결과와 기존의 자료 및 도구를 토대로 개발된 설문지의 적절성과 작성시의 소요시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시 산모 8명에게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2) 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1개 대학병원, 3개 중·소 종합병원, 5개 개인병원에 입원한 산욕기에 있는 산모 180명을 임의 추출하였다. 종합병원의 경우 참여를 원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 1개 대학병원에서만 조사가 가능하였다. 응답자는 146명으로 불완전한 자료 6개를 제외하면 연구에 사용된 최종 대상자는 140명이다. 응답자 중 산후조리원을 선택한 사람은 56명,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84명으로 1:1.5의 비율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연구 도구는 연구자들의 사전조사 결과와 기존의 자료 및 도구를 토대로 개발한 설문지로서 8명의 대상자에게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영역(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가족적/사회적 특성,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분만 횟수, 분만 방법, 신생아 성별 및 건강상태, 학력, 직업, 경제상태, 동거하는 가족 수를 포함하여 총 12문항이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이영화(1988)가 작성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총 22 문항을 4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산모의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9로 본 연구결과 나타났다. 우울정도는 Zung (1965)의 Self-Rating 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였는데 총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 2개의 항목은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는데, 18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세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가족적 특성으로는 가족(남편, 시댁, 친정)과의 친밀도를 유재동(1991)이 제작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친밀도의 항목들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개방성, 개인적 자율성, 근접성, 협동성의 4가지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남편과의 친밀도는 4점 척도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나타난 Cronbach's $\alpha = .80$ 이다. 시댁과 친정과 친밀도는 각 4 점척도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댁이나 친정과 친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나타난 Cronbach's α 는 .87(시댁)과 .87(친정)이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식은 산후조리원의 가격, 시설,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scale은 산모 8명을 대상으로 pretest를 시행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되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1) 사전 조사

2000년 1-2월 동안 서울시내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산욕병동 1곳에 입원한 산모 9명, 산후조리원 1곳에 있는 산모 8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20분간 1:1 면담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면담법에 대해 미리 소개(안내)를 하였으며, 산모가 스스로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당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공문을 작성하였고, 본 연구자들이 직접 해당병동의 수간호사에게 연락하여 연구 목적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승인을 받았고, 산후조리원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한 곳을 직접 연락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과시간을 통해 대상자와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을 시행한 결과와 기존의 문헌 및 도구를 참고하여 제작한 설문지를 2000년 4월 5일 서울 시내 일 대학병원의 산모 8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최종 보완하였다.

2) 본 조사

사전 조사와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최종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2000년 4월 7일부터 2000

년 5월 31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1개 대학병원, 3개 중소 종합병원, 5개 개인병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 병원은 연구자가 공문을 작성하고 간호부를 직접 방문하여 간호 부장님께 연구 목적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쳤고, 중·소 종합 병원과 개인 병원은 연구자가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책임자에게 설명한 후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쳤다. 병실에서는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을 수락하는 산모에게만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한부당 15분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후조리원 이용여부와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는 χ^2 검증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척도는 총점을 4분위수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50분위수로 나누어 분석한 것과 차이가 없어 중앙값을 중심으로 이분화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여부와 χ^2 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산후조리원을 선택한 산모 56명(40%)과, 선택하지 않은 산모는 84명(60%)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가족적/사회적 특성, 산후조리원 지식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과 산후조리원 선택

전체 조사대상자 140명에 대한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고른 분포를 보였고 산모의 직업 유무는 직업이 없는 산모가 71.9%, 직업이 있는 산모가 28.1%이었다. 월수입은 100-199만원이 46.4%로 가장 많았고 산모와 남편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많았다. 분만방법은 제왕절개가 55.4%로 자연분만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신생아들은 대부분 37주 이상의 임신기간 후에 태어났고(92.7%), 건강한 편이었다(94.2%).

일반적 특성 중 산후조리원 선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변수는 임신주수, 산모의 학력과 남편의 학력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산모들은 그렇지 않은 산모

들보다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임신기간이 37주 이상인 정상아를 분만한 산모들도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후조리원 선택

	전체응답자(%) n=140	산후조리원 선택(%) n=56	P
연령(세)			
22 ~ 27	41(29.3)	15(26.8)	0.753
28 ~ 29	29(20.7)	11(19.6)	
30 ~ 32	31(22.1)	15(26.8)	
33 ~ 40	39(27.9)	15(26.8)	
분만방법			
자연분만	62(44.6)	30(53.6)	0.810
제왕절개	77(55.4)	26(46.4)	
신생아 성별			
남	63(45.3)	26(46.4)	0.830
여	76(54.7)	30(53.6)	
신생아 건강상태			
건강하다	130(94.2)	54(96.4)	0.355
건강하지 않다	8(5.8)	2(3.6)	
임신주수(주)			
~ 37주 미만	10(7.3)	1(1.8)	0.043*
37주 이상 ~	127(92.7)	54(98.2)	
산모의 직업			
직업 있음	39(28.1)	15(27.3)	0.744
주부	100(71.9)	40(72.7)	
월수입(만원)			
~ 199	65(46.4)	22(39.3)	0.145
200 ~ 299	37(26.4)	13(23.2)	
300 ~ 399	33(15.7)	13(23.2)	
400 ~	16(11.4)	8(14.3)	
본인의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67(47.9)	14(25.0)	0.000***
대학교졸업 이상	73(52.1)	42(75.0)	
남편의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42(30.0)	8(14.3)	0.001**
대학교졸업 이상	98(70.0)	48(85.7)	

* p<.05, **p<.01, ***p<.001

2. 심리적 특성과 산후조리원 선택

심리적 특성이 산후조리원 선택에 미치는 결과는 <표 2>와 같다. 신생아에 대한 자신감과 우울의 유의수준은 각각 p=0.530, p=0.0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산후 역할 부담은 산후조리원 선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 자신의 역할을

부담스러워 하는 산모는 그렇지 않은 산모보다 3배 이상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였다.

〈표 2〉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과 산후조리원 선택

구 분	선택군(%)	비선택군(%)	χ^2	P
신생아에 대한 자신감				
자신없다	30(43.5)	39(56.5)	0.395	0.530
자신있다	24(38.1)	39(61.9)		
우울				
우울하지 않다	22(32.8)	45(67.2)	3.102	0.078
우울하다	32(47.8)	35(52.2)		
산후 자신의 역할 부담정도				
부담스럽다.	43(78.2)	46(58.2)	5.788	0.016*
부담스럽지 않다.	12(21.8)	33(41.8)		

* p<.05, **p<.01, p<.001

3. 가족적/사회적 특성과 산후조리원 선택

가족적 특성이 산후조리원 선택에 미치는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편과의 친밀감, 친정과의 친밀감, 시댁과의 친밀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남편의 도움정도 역시 산후조리원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도움수(산후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수)는 유의확률이 0.001로 매우 유의하였다. 돕는 사람이 많을수록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적었다. 산후조리원 선택에 대한 친구나 남편의 권유는 산모로 하여금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비율을 높게 하였다. 특히 남편이나 가족의 권유가 있을 경우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61.1%).

4.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식과 산후조리원 선택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식 혹은 정보가 산후조리원 선택에 미치는 결과는 〈표 4〉와 같다. 산후조리원에 대해 들 어본 산모는 그렇지 않은 산모보다 선택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50.5%). 산후조리원의 이용가격에 대한 만족도

〈표 3〉 대상자의 가족적/사회적 특성과 산후조리원 선택

구 분	선택군(%)	비선택군(%)	χ^2	P
남편과의 친밀감				
친밀하지 않다	28(36.4)	49(63.6)	1.225	0.268
친밀하다	27(45.8)	32(54.2)		
남편의 산후조리와 가사 도움정도				
많이 도와줄수있다/조금 도와줄수있다	47(42.7)	63(57.3)	1.591	0.209
거의 도와줄수없다/전혀 도와줄수없다	9(30.0)	21(70.0)		
남편 혹은 가족의 산후조리원 권유				
있다	44(61.1)	28(38.9)	27.527	0.000***
없다	12(17.6)	56(82.4)		
친정과의 친밀감				
친밀하지 않다	33(45.2)	40(54.8)	1.147	0.284
친밀하다	22(36.1)	39(63.9)		
시댁과의 친밀감				
친밀하지 않다	25(36.2)	44(63.8)	0.835	0.361
친밀하다	29(43.9)	37(56.1)		
남편의 도움줄 사람				
0명	17(81.0)	4(19.0)	17.279	0.001***
1명	27(32.5)	56(67.5)		
2명	11(39.3)	17(60.7)		
3명	1(20.0)	4(80.0)		
친구의 산후조리원 권유				
있다	43(48.3)	46(51.7)	24.016	0.000***
없다	13(25.5)	38(74.5)		

* p<.05, **p<.01, p<.001

와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산후조리원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용가격에 만족하는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선택이 그렇지 않은 산모들보다 약 2배 가량 높았다 (70.6%와 30.5%). 산후조리원의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46.8%와 14.3%). 하지만 시설만족도와 신생아 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V. 논 의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논의

일반적 특성은 산모의 연령, 분만방법, 신생아의 성별과 건강상태, 산모의 직업유무, 가족의 월수입, 산모와 남편의 학력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가족의 월수입이 산후조리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산모와 남편의 학력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거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산후조리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빠를 가능성이 있다. 산모의 임신기간이 길

수록 (37주 이상) 산후조리원 선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산후조리원이 조기 분만된 신생아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2. 심리적 특성에 대한 논의

심리적 특성은 신생아관리에 대한 자신감, 산모의 우울감, 산후 산모의 역할부담감을 묻는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항목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2>와 같다. 이해경 (1992)은 산육부가 그들 자신과 신생아관리에 대해 매우 긴장하고 있어 신생아와 함께 가정에 들어간 산육부는 기대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어려운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산육부 회복과정, 신생아 관리, 모아관계형성에 대한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하여 신생아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연구결과는 신생아 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산후조리원 선택과의 관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우울증세를 묻는 문항도 본 연구의 사전 조사에서 면담했던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산모들과의 정서적, 사회적 교류를 하게 됨으로서 우울증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실제

<표 4> 대상자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식과 산후조리원 선택

	선택군(%)	비선택군(%)	χ^2	p
들어본 경험				
있다	50(50.5)	49(49.5)	15.544	0.000***
없다	6(14.6)	35(85.4)		
시설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조금 만족한다	47(45.6)	56(54.4)	3.478	0.062
매우 불만족한다/조금 불만족한다	9(27.3)	24(72.7)		
이용가격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조금 만족한다	24(70.6)	10(29.4)	17.178	0.000***
매우 불만족한다/조금 불만족한다	32(30.5)	73(69.5)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매우 관심있다/조금 관심있다	55(44.0)	70(56.0)	7.109	0.008**
거의 관심없다/전혀 관심없다	1(7.1)	13(92.9)		
신생아 관리에 대한 신뢰도				
매우 믿을 수 있다/조금 믿을 수 있다	52(43.3)	68(56.7)	3.385	0.066
거의 믿을 수 없다/전혀 믿을 수 없다	4(21.1)	15(78.9)		
이미지				
매우 긍정적/조금 긍정적	52(46.8)	59(53.2)	9.854	0.002**
매우 부정적/조금 부정적	4(14.3)	24(85.7)		

* p<.05, **p<.01, p<.001

연구 결과는 산모가 느끼는 우울증세와 산후조리원 선택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산모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묻는 문항은 연구결과 $p=0.016$ 으로 아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상대로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클 때 산후조리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산후조리원 선택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가와 관련이 높아 보이는데, 산후조리원이 신생아 관리보다는 산모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된 인력이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와 관련된 문제나 산모의 우울증세는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가족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논의

산모의 가족적/사회적 특성은 남편과의 친밀감, 친정과의 친밀감, 시댁과의 친밀감, 남편의 산후조리 도움정도, 남편 외에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수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친밀감을 묻는 항목에서는 산모가 남편, 친정, 시댁과의 친밀감이 낮을수록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연구결과 가족과의 친밀감과 산후조리원 선택 여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남편의 산후조리 도움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남편의 도움을 적게 받는 산모일수록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연구결과 남편의 도움정도와 산후조리원 선택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외에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묻는 항목은 예상대로 $p=0.001$ 로 아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남편의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사회적 지지망)이 한 명도 없는 경우 81.4%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였고 3명인 경우에는 20%만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였다.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이 상대적으로 큰 산모는 정서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House, Landis & Umberson, 1988; Seeman & Berkman, 1988; Wellman, 1981). 친구와 남편의 권유도 산후조리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현(1999)의 연구에서도 경험자의 소개는 산후조리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가족적인 혹은 사회적인 요인은 산모가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라기보다는 물질적인 혹은 산후조리를 위한 실제적인 가사와 아이 돌보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4. 산후조리원 관련 지식에 대한 논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들어본 경험, 산후조리원에 대한 시설의 만족도, 산후조리원의 이용가격의 만족도, 산후조리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정도,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관리에 대한 신뢰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미지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산후조리원에 대해 들어본 경험, 산후조리원의 이용가격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미지가 각각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산모의 역할 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주변에 도움을 청한 사람이 부족한 주부라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산후조리원 선택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의 가격과 이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생아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산후조리원의 선택이 신생아의 관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산모 자신의 관리에 보다 관심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영역(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가족적/사회적 특성,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의 산후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된 탐색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단계와 본조사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다.

우선 사전조사는 설문지 문항 작성을 위하여 서울시내에 위치한 1개 종합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 각 9명과 8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의 영향 요인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한 후, 이의 결과와 문헌고찰 및 기존 도구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설문지는 실제 대상군인 산모 8인에게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본 조사의 연구도구는 본 연구진이 사전 조사와

pretest를 시행한 후 최종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설문지로서,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을 나가기 전에 소정의 절차를 받아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진행이 되었고, 실제적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4월 7일부터 2000년 5월 31까지로서, 수도권에 위치한 1개 대학병원, 3개 중소 종합병원, 5개 개인병원에 있는 산모 중에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을 수락한 산모 146명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140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후조리원 이용여부와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는 χ^2 검증을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척도는 총점을 4분위수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50분위수로 나누어 분석한 것과 차이가 없어 중앙값을 중심으로 이분화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여부와 χ^2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고른 분포를 보였고 산모의 직업 유무는 직업이 없는 산모가 71.9%, 직업이 있는 산모가 28.1%이었다. 월수입은 100-199만원이 46.4%로 가장 많았고 산모와 남편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많았다. 분만방법은 제왕절개가 55.4%로 자연분만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신생아들은 대부분 37주 이상의 임신기간 후에 태어났고(92.7%), 건강한 편이었다 (94.2%) <표 1 참조>.
2. 일반적 특성 중 산후조리원 선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변수는 임신주수 ($p=.043$), 산모의 학력 ($p=.000$)과 남편의 학력 ($p=.001$)이었다. 산모자신과 남편의 학력이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임신기간이 37주 이상인 정상아를 분만한 산모들도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1 참조>.
3.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산후 자신의 역할 부담정도가 산후조리원 선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p=0.016$), 신생아에 대한 자신감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참조>.
4. 산후조리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사회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남편의 도움을 줄 사람 ($p=.001$), 남편 또는 가족, 친구의 산후조리원 권유가 있는 경우 ($p=.000$)가 산후조리원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남편과의 친밀감, 남편의 산후조리와 가사도움정도, 친정, 시댁과의 친밀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참조>.

5.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식과 산후조리원 선택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산후조리원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경우 ($p=.000$), 산후조리원의 이용가격에 대한 만족도 ($p=.000$)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우 ($p=.008$), 긍정적 이미지를 가졌을 경우 ($p=.002$)가 산후조리원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신생아 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전문적인 산후조리기관의 관리를 받고자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간호사가 간호사업의 한 방향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발전시키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가 전문적으로 영역을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간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문적인 간호인력에 의하여 산후조리원이 운영될 경우에는 현재의 산후조리원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정서적인 지지와 신생아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간호 등이 제공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호사는 산후조리원이 숙박시설이 아닌 간호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3.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을 담당인력과 시설을 진단하고 등급을 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산모가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하고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운숙(1998). 간호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숙 (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산모건강 우리가 책임져요 (1999, 1월 18일). 조선일보.
- 산후조리원 내년부터 제도화 (1999, 11월 2일). 조선일보.
- 서연옥 (1987). 임신부가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스트레스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 간호학회지, 17(2), 153-161.
- 안향란 (1985). 초임부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지지 강화 교육의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간호학회지, 17(2), 5-16.
- 유은광 (1993). 여성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행위: 산후조리의 의미 분석. 간호학탐구, 2(2), 37-65.
- 유은광 (1995). 한국의 산후 문화와 여성이 경험한 산후병에 관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 간호학회지, 25(4), 825-836.
- 유은광 (1997). 여성의 건강상태와 산후조리 경험과의 관계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6(5), 74-90.
- 유은광 (1998). 여성의 산후 문화적 요구 [산후조리의 의미재고와 현 간호실무 적요]. 대한간호, 37(3), 27-40.
- 유은광(1999). 산후여성의 기능상태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3), 410-419.
- 유재동 (1991). 미혼여성을 위한 친밀성 형성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화 (1988). 산욕초기 산모의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산후 우울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숙 (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혜경 (1992).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역활획득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문희, 유은광 (1999). 건강전문가의 산후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3), 313-326.
- 정영미, 유은광 (1999). 관절염 여성의 신체적 불편과 산후조리 경험정도와의 관계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1), 89-105.
- 정 현 (1999).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간호요구 및 만족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최연순, 장춘자, 조희숙, 최양자, 장순복, 박영숙, 이남희, 조동숙, 이은희 (1999). 여성건강간호학 I. 서울: 수문사.
- 최연순, 조희숙, 장춘자 (1987). 모성간호학. 서울: 수문사.
- Arnold, L.S. & Bakewell-Sachs S. (1991). Models of perinatal home follow-up. Journal of Perinatal & Neonatal Nursing, 5(1), 18-26.
- House, J.S., Landis, K.R.,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Hrobosky, D.M. (1977). Transition to parenthood: Balancing of need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2(3), 457-462.
- Ladwing, P.W., London, M.L. & Olds, S.B. (1990). Newborn Nursing(2nd ed). Redwood Addison Welsey co.
- Oakley, L.D. & Kane, J. (1999). Personal and social illness demands related to depressio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3(6), 294-302.
- Pinneau, S.R. (1975)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Strai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 Reeder, S.J., Martin, L.L., Koniak-Griffin, D. (1997). Maternity Nursing. Philadelphia : Lippincort.
- Rubin, R. (1975), "Maternity nursing stops too soon,"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5(10), 1680-1684.
- Seeman, T.E. & Berkman, L.F. (1988).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Who provide suppor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6(7), 737-749.
- Wellman, B. (1981) Applying network analysis to the study of social support In B. H. Gottlieb (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pp. 171-200)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Zung, W.W.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Abstract-

Key concept : Sanhujoriwon, Psychosocial factors,
Sanhujoriwon image

Factors that Affect the choice of the Utilization of Sanhujoriwon among the Postpartal Women

Kim, Joohyung · Song, Jueun***

Yoo, Jae Eun · Lee, Yu Mi

*Han, Mi Kyung · Kim, So Yeun****

*Hong, Gi Sun · Lee, Yoon Jung · Oh, Jin****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choice of the Sanhujoriwon utilization among the Korean postpartal women. Data were collected from 140 postpartal women in 9 hospitals around Seoul. Data were analyzed based on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orty percent of the respondents chose to go to a Sanhujoriwon while they were in a hospital after having given birth to a child.

2. The number of persons who could help a respondent beside her husband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he choice of the Sanhujoriwon utilization. In addition, burden from multiple roles expected after the birth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choice of the Sanhujoriwon utilization. Recommendations by husbands or friends to use the Sanhujoriwon also increased the proportion of the choice of the Sanhujoriwon utilization.

3. Knowledge about the Sanhujoriwon appea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Having heard about the Sanhujoriwon, an appropriateness of the price, and a positive image of the Sanhujoriwon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choice of the Sanhujoriwon utilization.

It was expected that the degree of depressive symptoms and confidence of raising a newborn baby would affect the Sanhujoriwon utilization. This was not the case in this study. Intimacy developed between the postpartal women, their husbands and their relatives as well as parents in-law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to the choice of the utilization.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an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 Assistant Professor,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 Research Assistan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 Senior Student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